

한국의 구법승

10. 황룡사 9층탑 건립 기반 다진 안홍 스님

‘만약 용궁 남쪽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 나라의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니 제1층은 일본(日本)이요, 제2층은 중화(中華)요, 제3층은 오월(吳越)이요, 제4층은 탁라(托羅)요, 제5층은 응유(鷹遊)요, 제6층은 말갈(靺鞨)이요, 제7층은 단국(丹國)이요, 제8층은 여적(女狄)이요, 제9층은 예맥(濊貊)이다.’

신라 황룡사 9층탑 당시 건립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글이다. 황룡사 9층탑 건립은 당대 최고의 불사였을 뿐만 아니라 신라의 위상을 널리 펼친 국가적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안홍(安弘) 스님의 건의에 의해서 건립의 당위성을 표한 이 글도 안홍 스님이 지었다는 사실은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삼국유사〉에서는 황룡사구층탑조에서 안홍 스님이 지은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에는 위의 내용이 나온다.

“신라 제 27대에는 여왕이 임금이 되었는데 비록 도리는 있으나 위엄이 없어 9한이 침노하였다. 만약 용궁 남쪽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의 재앙을 진압할 수 있을 것이니 제1층은 일본(日本)이요, 제2층은 중화(中華)요, 제3층은 오월(吳越)이요, 제4층은 탁라(托羅)요, 제5층은 응유(鷹遊)요, 제6층은 말갈(靺鞨)이요, 제7층은 단국(丹國)이요, 제8층은 여적(女狄)이요, 제9층은 예맥(濊貊)이다.”

뒤이어 〈삼국유사〉 마한조에도 〈해동안홍기(海東安弘記)〉를 인용해 황룡사구층탑조와 유사하게 구한(九韓)을 설명한다.

안홍 스님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각훈(覺訓) 스님이 지은 〈해동고승전〉에 나오는데 〈해동고승전〉에서는 안홍 스님을 흥륜사금당십성에 속하는 안함 스님과 동일인물로 이해하고 있다.

안홍 스님, 즉 안함 스님은 〈삼국유사〉 동경흥륜사금당십성(東京興輪寺金堂十聖)조에 흥륜사 금당에 모셔진 10명의 성인 중 아도(阿道), 염축(嚴), 혜숙(惠宿), 의상(義湘) 스님과 함께 동쪽 벽에 앉아 서쪽을 향해 안치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서쪽 벽에 앉아 동쪽을 향해 안치되었던 인물은 표훈(表訓), 사파(蛇巴), 원효(元曉), 해공(惠空), 자장(慈藏) 스님이었다. 안홍 스님은 신라의 대표적인 승려 중 한명으로 당시 도성사(道師)로 숭앙받던 인물이었다.

〈해동고승전〉에 안홍 스님에 대한 부분은 먼저 안홍 스님이 출가한 내용과 중국에 유학을 다녀온 행적을 기록하고, 최치원의 〈의상전〉과 〈신라본기〉 인용을 통해 안홍 스님과 안함 스님이 동일인물인 점을 추정한다. 또 안홍 스님이 신라에서 참서를 지었으며 선덕왕(善德王) 9년인 640년에 입적했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한림(翰林) 설모씨가 왕명을 받들어 찬했다는 스님의 비명(碑銘) 내용을 덧붙인다.

안홍 스님은 속성이 김씨로 시부(詩賦)인 이찬(伊禫)의 손자로 태어났다. 스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도리를 깨달았고, 성품이 맑고 허심탄회하였다고 전해지는데 특히 의지가 굳고 깊었다고 한다.

스님은 일찍부터 중생교화에 나섰는데 진평왕 22년인 600년에는 혜숙(惠宿) 스님과 도반(道伴)이 돼 배를 타고 중국 수나라로 향하다 풍랑으로 되돌아왔



황룡사 금당에 모셔졌던 안홍 스님 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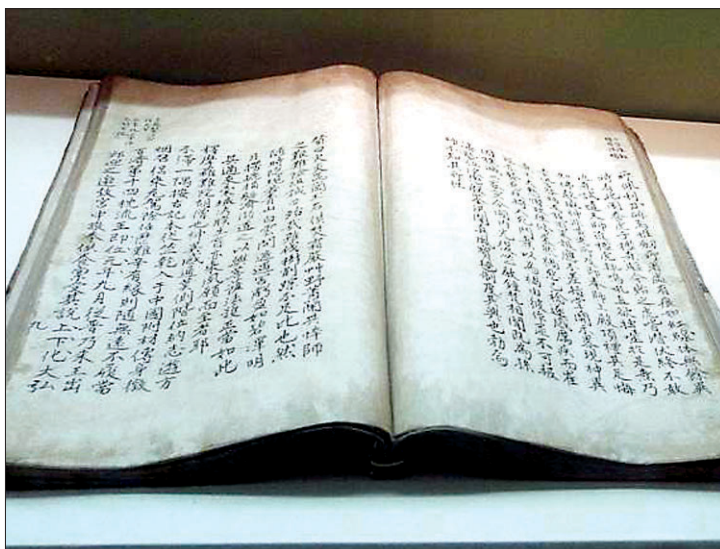
안홍 스님이 건의한 황룡사 9층탑 조감도. 안홍 스님은 대형탑 불사를 통해 신라의 위상을 높이기 주설했다.

〈동도성립기〉에 9층탑 당위성 전해 수나라 유학, 대흥사서 불교 익혀 신라 10성(聖) 중 한명으로 추앙

비마진제 등 서역승 신라 최초 동행 밀교 경전 번역 ‘해동명현’으로 꼽혀 〈참서〉 지어 신라의 국경 방향 제시



각훈 스님이 쓴 〈해동고승전〉. 여기에는 안홍 스님의 일화가 담겨 있다.



다. 이듬해 스님은 칙명에 따라 수나라 사신과 함께 수나라에 당도해 수 분제(581~604)를 알현하고 대흥사(大興寺)에 머물게 된다.

안홍 스님은 여기서 5년 동안 불교경전을 두루 배우고 십승(十乘)의 비법을 익혔다고 전해진다. 이후 진평왕 27년인 605년에 우전국의 비마진제(毘摩真諦) 등 3명과 함께 신라로 돌아왔는데 서역의 스님들이 직접 신라에 온 것은 이때부터라고 한다.

〈해동고승전〉의 최치원(崔致遠)이 지은 〈의상전(義湘傳)〉 인용 부분에는 안홍 스님이 625년 비마진제(毘摩羅真諦) 스님 등 3인과 함께 귀국해 황룡사(皇龍寺)에 머무르면서 밀교경전을 번역하고 〈동도성립기(東都成立記)〉를 지어 해동의 명현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전한다. 세주에서는 ‘북천축(北天竺) 오

장국(烏國) 비마라진제(毗摩羅真諦)의 나이는 44세, 농가타(農加陀)의 나이는 46세, 마두라국(摩豆羅國) 불타승가(佛陀僧伽)의 나이는 46세였다. 52국을 경유하여 비로소 중국에 갔다가 드디어 해동으로 와서 황룡사에 머물면서 〈전단향화성광묘녀경(檀香火光妙女經)〉을 번역해 내니, 신라의 승려 담화(曇和)가 받아들였다. 얼마 지나 중국 승려들이 표를 올려 돌아가기를 청하므로 왕이 허락하여 돌려보냈다.’고 전해진다.

〈삼국사기〉에는 안홍 스님이 진흥왕 37년인 576년에 불법을 구하러 수나라에 갔다가 비마라(毘摩羅) 스님 등과 함께 귀국하며 〈능가경(楞伽經)〉 〈승만경(勝經)〉 등 경전과 부처님 사리를 가지고 온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소 연대의 차이는 있지만 안홍 스님은 수나라 문

제(文帝)에 의해 582년 세워진 국가종교 근본사원이었던 대흥사(大興寺)에 머물렀으며 신라로 귀국하며 불사리를 전하고 황룡사에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 황룡사 9층탑의 경우 대흥사에 있었던 사리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안홍 스님은 신라에서 참서(講書) 한 권을 지었는데 여기에는 신라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었다. 그 글자가 흩어져 있어 만든 사람을 알기 어렵고, 그 중지가 깊이 숨겨져 있어 이치를 찾는 사람이 연구하기 어려웠다고 한다. 스님은 참서에서 신라에 첫 번째 여자 임금을 도리천(陀利天)에 장사지낸다는 것(선덕여왕의 죽음일화) △천리 밖에서 전쟁하던 군사가 패했다는 것 △사천왕사(四天王寺)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왕자가 고국으로 돌아온 해(김인문이 귀국함) △대군(大君)이 성명(盛明)한 해

(신라 통일전쟁 종결 시점)를 예언했는데 모두 어긋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해동고승전〉에 소개된 참서는 일부 원문이 있지만 대개는 후대에 일어난 사건을 대입한 해석문이다. 원문은 빠른 시일 내에 겪을 이웃나라로부터의 침공과, 그 해결책으로 중국에 대한 적극적 외교의 필요성을 주장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스님은 이 시련을 극복하고 미래를 약속 할 수 있는 논리로서 신라 선덕왕(善德王)이 살고 있는 신라가 곧 불국토(佛國土)임을 주장했으리라.

안홍 스님은 선덕왕(善德王) 9년인 640년 9월 23일에 만선도량(萬善道場)에서 향년 62세로 입적했다고 한다. 한림(翰林) 설 모씨가 왕명을 받들어 찬한 비명에는 ‘황후를 도리천에 장사지내고, 천왕사(天王寺)를 세웠다. 괴상한 새가 밤에 울고 군사들이 아침에 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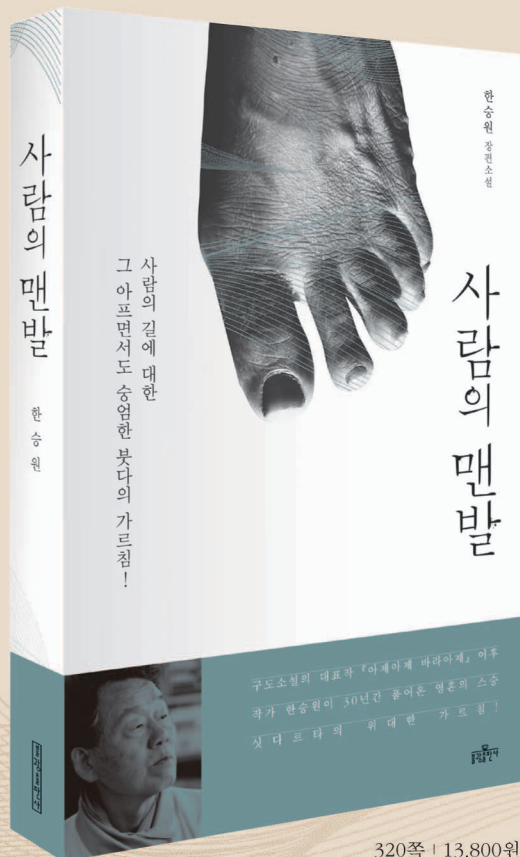
왕자가 관문을 건너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뵈고, 5년 동안 외지에 있다가 30세에 돌아오니, 뜨고 잠기는 윤전(輪轉)을 피어(彼我)가 어찌 면하겠는가. 나이 62세에 만선에서 입적함에, 사신이 바닷길로 돌아오다가 스님을 만나니 물 위에 단정히 앉아 서쪽을 향해 가더라’고 전해진다.

학계에서는 신라 10성 중 한명인 안함 스님과 안홍을 같은 인물로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진흥왕 37년인 576년에 안홍 스님이 수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비마라(毗摩羅) 등 두 승려와 함께 돌아와 〈능가경(楞伽經)〉과 〈승만경(勝經)〉 및 부처님의 사리를 바쳤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었는데 안함 스님은 이보다 늦은 진평왕 23년인 601년에야 중국에 갔다고 하므로 연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작가 한승원이 30년의 염원을 담아 그려낸 부처님의 생애!

한 10년쯤 그저 기다릴 생각으로, 자신을 믿고서 천천히 걸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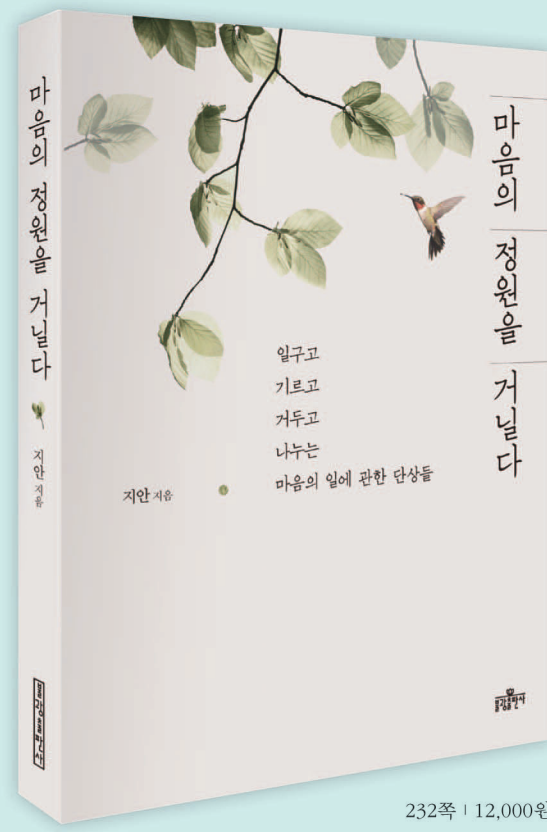
사람의 길에 대한 그 아프면서도 숭엄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제나 그제나 세상은 계급 사회이다. 지금은 자본주의 계급 사회이다. 이 부도덕한 사회 속에서 지금 우리는 출가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싯다르타의 맨발은 슬프면서도 장엄한 출가 정신의 표상이다. 우리가 싯다르타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맨발, 혹은 출가 정신이다.”

— 작가의 말에서

한승원 정월소설 사람의 맨발

화제의 신간



생존 경기를 벌이고 있는 현대인에게 보내는 산속 스님의 응원 메시지

지안 스님 1970년 통도사에서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통도사 승가대학 강주, 정법사 주지,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 조계종 중립 승가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조계종 고시위원장이자 반야불교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있다.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